



WEAVING LIGHT

빛으로 짜고, 기억으로 묶다

여인 빛

강현지

Hyunji Kang

김현수

Hyunsoo Alice Kim

12.6_12.31 2025



보이지 않는 결 속에서 빛이 자라난다.

빛은 유리 속을 굴절하며 스며들고, 직물의 결 사이를 통과하며 머문다.

유리의 투명한 결 속으로 다양한 색을 품고 스며든 빛은, 세상에 처음 태어난 직물의 숨결과 맞닿으며 부드럽게 곡선을 그리며 흔들린다. 자연의 숨을 품고 손의 온기를 간직한 채, 빛은 유리와 직물 안에서 머물다가 누군가의 시선에 닿는 순간 다시 피어난다.

각자의 '빛의 결'을 탐구하는 두 작가 강현지(유리작업자)와 김현수(직물예술가)는 서로 다른 재료를 통해 빛과 기억, 그리고 시간을 직조한다. 유리와 직물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빛을 품는다. 한쪽은 투명하게 통과시키고, 다른 한쪽은 결 사이로 스며든다. 강현지는 투명한 물질을 통해 빛의 궤적을 시각화하고, 김현수는 직조의 행위를 통해 시간과 기억의 결을 짜낸다. 그들의 작업은 물성과 감성이 교차하는 경계에서, 빛이 '기억의 형태'로 변모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 순간, 빛은 매체의 속성을 넘어 감정의 언어로 변환된다. 두 작가는 그 언어를 유리와 직물이라는 재료로 기록하며, '빛으로 짜인 시간', '기억으로 묶인 감각'을 하나의 서사로 엮어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차가움과 따스함, 단단함과 유연함, 투명함과 불투명함이라는 상반된 속성을 지닌 유리와 직물이 대화하듯 이어지며, 그 만남 속에서 빛과 색, 그리고 온기의 이야기를 피어낸다. 빛은 형태를 드러내고, 색은 감정을 짜며, 두 재료는 한 공간속에서 새로운 파장을 만들어내 감각의 언어가 된다. 전시는 바로 그 찰나_빛이 물질의 경계를 통과하며 감각으로 변하는 순간_을 포착한다. 빛이 머무는 순간, 우리는 시간의 흐름과 감각의 변화를 동시에 경험한다. 유리의 표면에서 반사되는 빛은 직물의 결 위로 스며들고, 직물의 온기는 다시 유리에 빛을 되비춘다. 그 순환 속에서 빛은 기억이 되고, 기억은 다시 빛으로 피어난다. 그렇게 서로를 비추며 새로운 색의 파장은 점점 확대된다.

겨울의 문턱에서 선보이는 이번 전시는 차가움과 따스함이 공존하는 계절의 감각을 닮아있다.

<여인 빛 Weaving Light>은 빛을 매개로 기억을 직조하고, 감각을 엮어내는 여정이다.

유리와 직물이 만들어내는 공명 속에서 우리는 '빛으로 짜인 시간'과 '기억으로 묶인 감각'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 한 줄기 빛이, 당신의 기억 속에도 은은히 스며들기를 바란다.

About the artist

강현지 | 유리작업자 (GLASS ARTIST)

유리의 투명함과 빛의 스밀을 통해 자연의 빛을 시각적 언어로 재해석한다. 유리라는 물질의 차가움 속에 따스한 빛의 온도를 담아 절기를 표현한 '빛사진'과 퓨징 기법으로 제작한 유리오브제를 통해 빛이 머무는 감각적 공간과 시간을 기억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김현수 | 직물예술가 (TEXTILE ARTIST)

오랜 해외 생활 속에서 자신의 뿌리를 찾는 과정으로 한국적 미의식을 탐구하기 시작했다. 직조가로서 직선을 활용해 곡선을 탐구하며, 자연과의 조화 · 곡선의 아름다움 · 실용성 · 절제된 겸손함 · 지속가능성 등 자신이 연구한 한국 미학의 원리를 바탕으로 시간 · 기억 · 감정의 층위를 엮어내는 융복합 예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79, jahamun-ro, Jongno-gu, Seoul 03035, Korea

Instagram@hflux_gallery



WEAVING LIGHT

빛으로 짜고, 기억으로 묶다

여인 빛

강현지

Hyunji Kang

김현수

Hyunsoo Alice Kim

12.6_12.31 2025



Press release

H-flux Gallery is delighted to present 'Weaving Light,' a two-person exhibition featuring artists Hyunji Kang and Alice Hyunsoo Kim, on view from December 6 to December 31. Bringing together glass and textile works that explore memory, time, and the use of light, the exhibition opens the winter season with moments where luminosity becomes emotion, and material becomes memory.

In the unseen grains of matter, light begins to shine. It refracts and permeates through the glass, passing between soft fibers of cloth, and lingers there. It gathers and scatters into subtle hues against the surface of freshly-made textiles. Carrying with it the warmth of human hands and a quiet pulse of nature, the light rests within glass and fabric waiting to be seen.

Artists Hyunji Kang and Hyunsoo Kim each explore their own "light", presenting their interpretations of memory, time, and luminosity through two distinct mediums. Glass and fabric treat light in different ways: one lets it pass through, while the other absorbs it. Using glass, Kang visualizes the trajectory of light as it moves through this transparent substance; Kim, meanwhile, uses textiles to incorporate ideas of time and memory through the act of weaving. Their works reveal how matter and emotion intersect, and focus on the moment when light transforms into a memory. Here, light transcends its physical presence and becomes a language, an expression of emotion—one that the artists translate using glass and fabric.

In this exhibition, glass and textiles— substances contrasted by their coolness and warmth, rigidity and softness, transparency and opacity—come together in a quiet dialogue. From this encounter emerges a story of light and colour. Light takes on different forms; color comes to represent emotion; and the glass and fabric generate new meanings within a shared space. The exhibition captures the precise moment when light turns into sensation. In that instant, we experience both the passage of time and shifts in perception: light reflected on the surface of glass seeps into every strand of fabric, and that warm glow of fabric returns to the glass. Through this subtle exchange, light becomes memory, and memory becomes light again.

Presented at the outset of winter, 'Weaving Light' echoes the season in which coldness and warmth coexist. It is an experience that shapes sensation into form. Within the resonance created by glass and fabric, we encounter sensations held together by memory. May a single shaft of that light find its way into your own recollections.

About the artist



Hyunji Kang | Glass Artist

Hyunji Kang reinterprets light through the way it permeates the surface of glass. She captures the warmth and subtle temperature of light, creating her "Light Photographs," which express the change in seasons. Using pieces of glass made with kiln-forming techniques, Kang explores spaces and moments where light lingers—recording the sensory experience of time held within glass.

Alice Hyunsoo Kim | Textile Artist

During her many years living abroad, Alice Hyunsoo Kim began exploring Korean aesthetics as a way to reconnect with her cultural roots. Drawing on principles she identifies within Korean aesthetics—harmony with nature, the beauty of curves, practicality, restrained humility, and sustainability—Kim creates interdisciplinary works that include layers of time, memory, and emotion.



79, jahamun-ro, Jongno-gu, Seoul 03035, Korea

Instagram@hflux_gallery